

공직동기이론(PSM)을 통한 공직자 일탈행위 억제*:

투명사회를 위한 탐색적 연구

Toward Curbing Public Servants' Deviant Behavior based upon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A Focus on the Exploratory Study for Clean Society

김 영 종(Kim, Young Jong)**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and public servants' deviant behavior in order to suggest a new anti-corruption paradigm in Korea. Until now, previous researches have emphasized the use of enforcement control mechanism as an anti-corruption strategy. However, this study suggests an adaptation of PSM, which is considered an autonomous mechanism toward curbing public servants' behavior. In this study, library research of PSM and empirical analysis of social survey of 309 respondents were used. The result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SM and deviant behavior of public serva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Second, in the frequency analysis, more than 83.5% and 79.2% of respondents respectively agreed that PSM could be useful to prevent corruption. Third, the factor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PSM level may be useful to prevent deviant behavior of public servants. Finally, the PSM appears to influence deviant behavior since th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s that a person has, the higher level of PSM a person is likely to have, and the unmarried respondents appeared to have higher PSM level than the married respondents. In an attempt to build a cleaner society, the importance of PSM should be emphasized as an effective anti-corruption strategy. This study should help in curbing public servants' deviant behavior and in recruiting public officials with high level of PSM.

Key words: Public Service Motivation, Deviant Behavior, Clean Society, Curbing Corruption.
anti-corruption strategy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2015041167)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I. 서론

한국공직자들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로 인한 부패현상(corruption phenomena)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무려 304명의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¹⁾ 이후 그 피해의 우려가 더 크게 강조되어 왔다. 교육 심리학자 마슬로(A. Maslow 1954)²⁾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안전의 욕구(safety needs)를 제2 단계로서 그 중요성을 갈파한 바 있다. 안전이 없으면 다른 욕구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탈행위와 공직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이론의 개념적 정의³⁾ 논의와 그 상관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반부패 전략의 패러다임(paradigm)전환을 탐색 하고자 한다. 구조적인 부패문제는 공직자들의 심각한 일탈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행위근저에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결여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태가 기저인 경우가 많다. 부패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인으로서의 기대역할(expected role)을 위반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이다. 따라서 공직동기이론 면에서 볼 때에 부패의 일탈행위는 공직동기가 결핍된 몰가치적 일탈행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직동기이론과 일탈행태이론의 상호 관계성에서 조명하여 그 특징과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직동기(PSM)의 고양을 통하여 일탈행위의 부패억제(curbing corruption)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공직 동기(PSM)가 높은 공직자는 업무의 생산성, 청렴성(integrity), 그리고 투명성(transparency)이 강하고 섬김의 리더십(service leadership)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SM 조기교육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특별 교육 프로그램(special education program)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지금까지의 부패통제가 주로 부패현상에 대한 강제성과 처벌에 의한 억제전략에 초점을 두어왔던 것에서 벗어나 공직

1) 세월 호 참사는 청해진 해운소속(실질적 소유자는 유 병언 회장)의 여객선이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으로서 304명이 사망, 9명이 실종된 비극적인 재난 사건이다. 최종 수사 발표에 의하면 탑욕(선사), 이기(선원), 나태(해경) 의 복합적인 부패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자는 399명을 입건, 154명 구속되었다 조선일보 2014. 년10월 7일 참조.

2) A. Maslow(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참조. A. Maslow는 생리적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욕구(safety needs), 사회적욕구(social needs), 자아존중욕구(self-esteem needs), 자아실현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의 다섯 단계로 인간의 욕구를 분류하고 있다. 마슬로는 후기에는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심미적 요구(aesthetic needs), 그리고 초월적 욕구(needs for transcendence) 를 추가하여 8단계를 주장하였다. 고수철(2016), “효율적 인간관계의 124법칙”, 자살예방교육(심화과정자료) 서울: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회:81.

3) 다음 참조할 것. Perry, J. L. & Wise, L.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373.

소명⁴⁾을 극대화 하고 사전통제(prior control)와 예방적 통제(preventive control)에 의한 반부패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일탈행위의 사후 치유보다도 일탈행위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공직자의 소명을 강조하고 높은 공직동기가 있는 자들을 충원 하는 인사정책 전환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시적 분석(macro analysis)⁵⁾에서 볼 때 국가인력의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II. 연구방법론과 범위

이 연구는 공직동기(PSM)와 공직자의 일탈행위와의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사회조사방법에 의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일탈통제 방향을 모색 하게 된다.

1.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연구의 타당성(validity)은“정확한 측정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측정지표들이 측정 하고자 하는 개념”(남궁근 2011:492)을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지 측정도구가 측정 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 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낸다. 연구의 신뢰성(reliability)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올 때에 그 측정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C.Sellitiz et al. 1976: 182) 이다. 이 연구는 공직동기와 일탈행위에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고로 개념모형(III장)과 실증적인 관계를 통계적인 분석(V장)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정성을 논의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이 연구의 범위는 공직동기이론과 일탈행위의 개념모형을 논의하고 공직과 일탈행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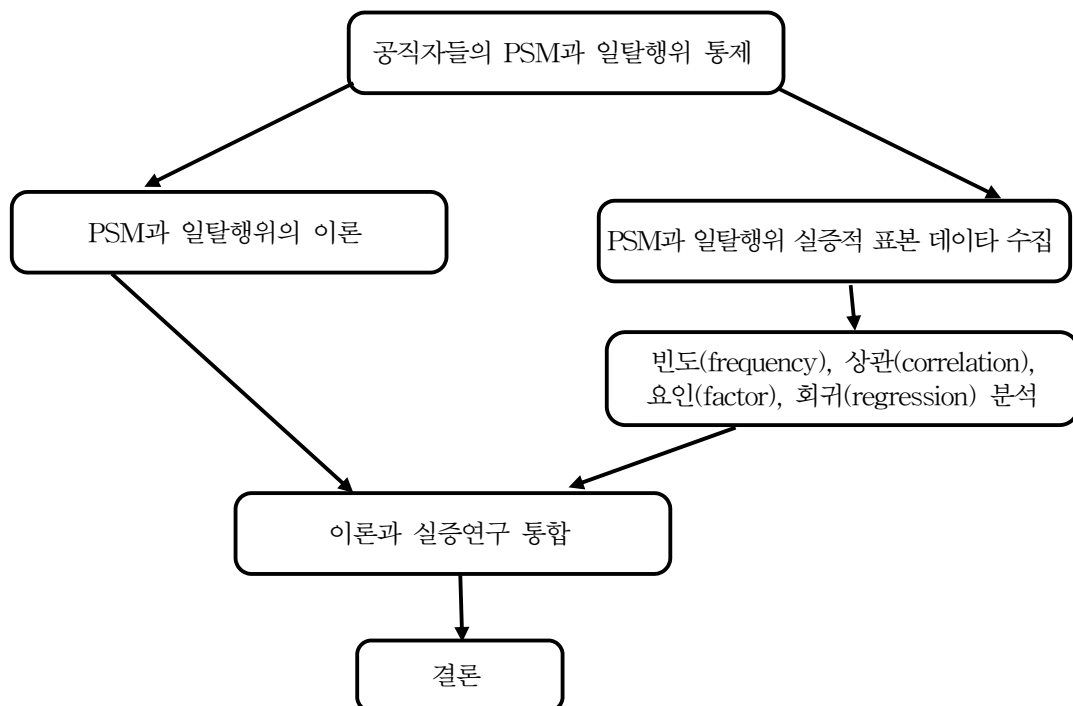
4) 원래 봉사란 개념은 그리스어(헬라), diakonew (διακονεω)에서 나온 것인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뜻에서 출발하였다. 이 말은 신약성경 눅 22:27, 요 13:1에서 발견된다. 특히 신약성경에서의 ‘diakonew’ (διακονεω)라는 헬라어는 눅 17:8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뜻은 식당에서 손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뜻(to wait at table)으로 사용하였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이 병철(2013), Bible Rex (9.0), 서울: Peniel Bible Research.

5) 여기에서 거시적 차원이란 국가의 인사정책과 인력자원의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을 함의한다.

동기(PSM)이론과 공직자 일탈이론(deviant behavior theory)의 개념적 접근과 실증적인 데이터를 분석 적용하여 일탈행위의 통제방향을 논의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패연구는 통합적 연구가 이상적이거나(김영중 2006: 1-21), 이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는 개념정의에 한정하고 실증적인 연구의 발견을 통하여 새로운 일탈행위 통제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틀(framework of methodology)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흐름도를 통하여 이해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는 사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발견한 자료들을 통계 분석하되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즉 공직동기 이론의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인 부패수준(level of corruption)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 처리하였다. 조사지는 Likert⁶⁾ (Warwick 1975: 154; 남궁근 2011: 456)의 척도 법에 의하여 자작하여 활용하였다.

공직동기와 공직자 일탈행위에 대한 태도조사는 사회조사방법(social survey)을 통하여

그림 1) 연구방법론 흐름도 (Flow Chart)



6) "Likert scale" 5단계는 총화평정법(summated rating)에 의한 척도구성방법으로서 어떤 변수의 강도문제(intensity question)를 추출하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사례 (the most common example)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행정학및 정책학의 연구에서 대부분 이 척도를 구성하고있다.

이루어졌다. 표본의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5일- 11월 20일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 졌다.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공무원, 송실대 행정학부 공무원 지망 대학생,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량진에 위치한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판단표본추출(judgment sampling)⁷⁾ (남궁근 2011: 538-539)한 309명의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의 Win 22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추론통계(inference statistic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1> 을 보면 알 수 있다.

Ⅲ. 공직 동기 이론(PSM)과 일탈행위의 개념적 정의

1990년대에 미국의 페리와 와이즈(James L. Perry & Loise R. Wise 1990: 367-373)를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동기이론은 지난 25년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확산되어 왔다. 원래 PSM 이론은 공직자 동기이론으로서 자기희생(self-sacrifice; Perry 1996), 사회봉사(social service; Perry 1996; Kim 2013: 59-60), Perry & Hondegheem 2008), 그리고 이타주의(altruism; Perry & Wise 1990; Rainey & Steinbauer 1999; Kim 2013)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타인과 사회 위한 봉사하는 개인의 성향(Perry and Hondegheem 2008: 7)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향이지 어떤 부문의 특수개념(one sector specific concept, Brewer and Selden 1998: 413-440)이 아니다. 그리고 PSM 은 공직자들에게 발견되는 동기이며 사적 부문의 동반자의 것과는 다르다(Perry, Hondgehem, and Wise 2010: 680). 따라서 PSM은 공적 조직에서 유래된 동기(motives grounded primarily in public organizations; Perry and Wise 1990: 368)이며 사람들의 이익공동체(interests community of people, Rainey and Steinberger 1999:20)이다. 그 외에도 PSM 은 공직기관에서 동기에 상응하는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n), 합리적 동기(rational motives), 규범적 동기(normative motives), 정적동기(affective motives) 라고 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다. 본 연구자는 PSM이란“정직하고 자기희생적인 경향을 가지고 공직자가 시민을 섬기는 소명(calling)이고 영감(inspiration)” 이라고 정의 한다⁸⁾

김상목(2013: 34-37)은 공직동기를 수단적 동기, 가치 기반적 동기, 동일시 동기, 그리고

7) 이 방법은 모집단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표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연구목적 달성에 도움” 이 될 수 있으며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목적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이기도 한다. 공무원지망생들과 연수원 공무원들이 공직 동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8) Young J .Kim et al.(Oct.9-10, 2014), “Explor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Corruption Theorie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PSM Workshop in Zeppelin University, Friedrichshafen, Germany*: 1-23.

자기희생(self-sacrifice)으로 나누어 개념 구성을 하고 있다. 한편 선교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직자가 정직하게 백성들을 봉사하기 위한 소명(calling) 즉 공직을 천직이라고 하는 소명을 느낄 때⁹⁾ 공직자는 일탈행위를 할 수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public servants)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구약성경에서 출현하는 모세의 부름(출 3:1-12)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는 공직봉사의 소명을 느낄때 그의 지위에 대한역할(role)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일탈행위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일탈행위인 부패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예를들면 부패가 “괴물(monster, 김영중 2001:254)”, “미확인 물체(UFO, Sagan, 1963: 368)”, “빙산(iceberg, Prins 1982: 20)” 혹은 “일탈행위(deviant behavior; 김준호외 6인 2015: 2-4; 김영중 2001: 69, 109, 258, 298)”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탈행위 (deviant behavior)란 사회학(sociology)에서나 범죄학(criminology)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이다. 범죄학에서 접근하면 일탈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 (Siegel 2012: 19)이다. 즉 공통적인 평균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social norm)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칭한다. 머튼(Robert. K. Merton) 이나 팔슨(T. Parsons)은 일탈행위를 사회변동 (social change) 의 직접적인 근거로서 사회 병리학 (social pathology) 측면에서 다루어왔다 (Traub et al., 1975: 51). 일탈행위가 사회구조를 해체 하는 것보다도 조직구조의 발전에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Traub et al., 1975: 51). 트라우브와 리틀(Stuart H. Traub & Craig. B. Little 1975: 183) 은 주장하기를 일탈행위는 사회해체 (disorganization), 문화갈등 (culture conflict), 혹은 아노미 (anomie) 현상이지만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 의 결과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탈행동은 사회학적으로 볼 때 기준이 있다(김영중 2008: 181-182). 구체적 일탈(concrete deviance)은 통계적으로 평균과는 다른 비전형적인 특성의 일탈도 있으나 행태적 일탈(behavioral deviance)은 사회전체나 일정한 개인에게 위협적이라고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행동으로서 범죄나 부패행위는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부패 행위(corrupted behavior)도 일탈이므로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볼까? 이 대답은 부패 학(corruption studies)적 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나 사회학적 차원에서는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연성(softness)에서 오는 결과적 산물로 볼 수 있다. 일탈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신체조건, 본능(id), 초자아(super ego)의 충돌과 부적합성,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process)에서 불완전성, 아노미현상(anomie; Durkheim 1897), 그리고 하위문화(subculture)등을 지적한다(김선웅 2006 최영인, 염건령 2005 김준호외 6인 2015; Steve Hall and Simon Winlow 2012; Stuart H.Traub et al. 1975; 김영중 2008). 일탈행위의 양태(typology)는 (김선웅 2006: 195-197) 개인적 일탈(individual deviance)과 집

9) 공직을 천직이라고 하는 소명을 느낄 때 공직자는 일탈행위를 할 수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public servants)가 될 수 있다.

단적 일탈(group deviance), 1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2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그리고 규범회피(norm of evasion)¹⁰⁾등이 있다. 규범회피는 1차적 일탈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실제로 법규 조항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강조 되어야 할 것은 일탈행위의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탈행위는 적절한 사회통제(social control)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외부적 사회통제기제(external control mechanism)도 중요하나 내면적 통제기제(internal control mechanism)가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론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PSM이론의 활용을 일탈행위 방지전략으로 강조한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는 부패의 다양한 개념정의가 산재하지만 공직자가 시민들에게 봉사하여 할 공익적인 임무나 기대(expectation)를 위반한 사익추구의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일탈행위 라고 정의한다(김영중 2003: 408).

IV.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실태

동아 일보¹¹⁾ 보도에 의하면 67%의 국민들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는 구조적인 부패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88%의 시민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국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가장 유착형태로 많이 부패하였다고 하는데 인식을 공유¹²⁾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부패수준은 어떠한가? 1995-2015년 기간 중 부패인지수준(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¹³⁾은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67개국 중에서 37위이며 100점 만점에 56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준은 경제발전이나 대학교육 진학 수준 혹은 정보화의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말하자면 구조적인 부패현상 즉 부패연결고리가 국가발전의 장애가 되고 국민들의 삶의

10) 규범회피는 1차적 일탈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실제로 법규조항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현상이다.

11) 동아 일보, 2014.7.27일자

12) 상계서

13) Korea ranks 15th among countries by GDP (nominal) for 2013, while internet users rank the 12th among countries ranked in 2012. College education level as of 2008 is ranked at 8th worldwide. U.N. Educational Index, <http://hdr.undp.org/en/content/education-index> (Accessed on Aug. 25, 2014); List of Countries by GDP,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195.html> (Accessed on Aug. 25, 2014); and <http://www.internetlivestats.com/internet-users-by-country/> (Accessed on Aug. 25, 2014). <http://www.transparency.org/> (Accessed on March 26, 2015). 한국 명목국민소득은 세계15위(2013), 인터넷 이용율은 12위(2012), 대학 교육율은 8위(2008)등에 비교할 때 부패지수는 2014년 43위 그리고 2015년은 37위로서 저조한 수준이다.

질(quality of life)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은 지난 21년간 한국의 부패지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부패인지 지수(CPI)는 평균 4.59/10¹⁴) 내외이고 전 세계에서 지난 21년 동안 평균 41위 정도의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그 부패의 일탈 행위를 억제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따라서 <표 1>에서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일탈 부패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통제 전략이 요청되는 국가적 과제¹⁵⁾ 이다.

〈표1〉 한국의 연도별 부패지수(CPI) 순위 (1995-2015)

연도	결과	순위	조사대상국 수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2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2005	5	40위	159개국
2006	5.1	42위	163개국
2007	5.1	43위	179개국
2008	5.6	40위	180개국
2009	5.5	39위	180개국
2010	5.4	39위	178개국
2011	5.4	43위	183개국
2012	5.6	45위	176개국
2013	5.5	46위	178개국
2014	5.5	43위	175개국
2015	5.6	37위	168개국

출처: <http://www.transparency.org/gcb2013> (Accessed on Dec.20, 2015)

이 표는 연구자가 매년 TI 의 발표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14) 연구자가 지난 21년간의 부패지수를 평균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15) 이정주와 윤은기 (2013)는 우리나라의 CPI 점수가 낮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전략 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CPI 지수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V. 조사 설계와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공직동기를 통한 일탈행위통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회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보았다. 표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탐색적 연구용으로 5문항의 공직동기와 일탈행위 관계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5단계의 Likert¹⁶⁾ 척도의 질문지를 작성 사용하였다. Q1이 종속변수로서, 그리고 Q 2, Q3, Q4, Q5. 이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관계성을 측정하려고 설계하였다.(설문지는 부록 참조). 통제변수(control variable)인 표본의 특징은 <표2>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수집배경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표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		Frequency	Percent
성별	남	189	61.2
	여	120	38.8
연령	20대	211	68.3
	30대	31	10.0
	40대	38	12.3
	50대 이상	29	9.4
학력	고졸	36	11.7
	대학재학 또는 졸업	251	81.2
	대학원 이상	22	7.1
결혼여부	예	80	25.9
	아니요	229	74.1
재산정도	상	10	3.2
	중	186	60.2
	하	113	36.6
직업	공무원	91	29.4
	학생	180	58.3
	전문직	3	1.0
	기타직업	4	1.3
	직업무	31	10.0

16) Likert 척도는 1930년대 초 Resis Likert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개인의 생각, 지각, 감정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한 유형이다.

2. 데이터 수집절차와 분석결과

제 II 장에서 이미 논의한 309명의 표본 조사지에서 확보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모형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sphericity)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N=309)

<i>KMO and Bartlett's Test</i>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753
Approx. Chi-Square	440.66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df 10
	Sig. .000***

*** $p < .001$

분석결과, KMO(최태성, 김성호 2004: 370) 값은¹⁷⁾ 0.753으로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최태성, 김성호 2004: 369)¹⁸⁾ 검정 결과 유의 확률 p값이 기준치인 .05 보다 적은 0.000 이므로 모형의 적합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요인분석 결과는 <표4>와 같다.

17) Kaiser Meyer Olkin 이 제시한 분석대상의 변수가 요인분석에 적합 하려면 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크고 KM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로 구성되어있다고 하며 0에 가까울수록 부적합하다, 최소한 0.6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8) 바트렛(Bartlett)이 1937년에 제시한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은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들의 두변수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검정하는 것이다. <표3>에서 유의확률 p값이 기준치인 .05 보다 적은 0.000 이므로 모형의 적합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표 4〉 요인분석 결과(N=309)

Factor	Question	Component1	Component2
일탈행위 방지수준	공직 동기가 높으면 공직자 일탈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Q1>	.814	.113
	부패의 억제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높은 공직동기부여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Q5>	.781	.306
	공직자 일탈행위”의 원인에는 공직자동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Q4>	.753	.224
공직동기 교육	공직자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공직동기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3>	.118	.916
	장래 공무원 희망자들에게 학교에서 조기에 공직동기교육을 실시하면 일탈행위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2>	.380	.754
Eigen-value		1.999	1.565
% of Variance		39.990	31.292
Cumulative %		39.990	71.282
Cronbach's α		.748	.698
전체 Cronbach's α		.784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모델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Manly 1994, 59-71)¹⁹⁾ 직각회전의 Varimax²⁰⁾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2개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71%가량으로 나타났다. 먼저 요인1을 ‘일탈행위 방지수준’이라 명명하였고 1.999의 Eigen-value와 Cronbach's α ²¹⁾는 0.748로 나타났다. 다음 요인2는 ‘공직동기 교육’이라 명명하였고 1.565의 Eigen-value와 Cronbach's α 는 0.69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0.784로 나타났다.

19)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란 Karl Pearson이 1901년에 처음으로 제안하였던 것으로 가장 간단한 다변량방법(multivariate methods)에 의한 요인분석 통계방법으로 요인의 회전없는(without any rotation of factors) 요인분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0) 베리막스회전(varimax rotation)은 주성분 요인분석에서 사용되며 요인행렬내의 세로줄에 있는 계수들의 분산(요인분산)을 최대로 한다. 즉 요인계수의 분산을 최대로 하는 기준이다.

21)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는 신뢰성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로서 내적일관성 척도(measure of internal consistency)라고 할 수 있다. 0.60 이상이되면 신뢰도가 만족할 만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보면 <표 5>와 같다.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차이 <Q1+Q5+Q4>의 경우는 독립표본 검정(independent samples 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차이(N=309)

Variable		N	M	SD	t/F	P
성별	남	189	3.32	0.75	-.802	.424
	여	120	3.39	0.72		
연령	20대	211	3.31	0.70	.749	.523
	30대	31	3.51	0.74		
	40대	38	3.41	0.83		
	50대 이상	29	3.33	0.90		
학력	고졸	36	3.13 ^a	0.68	3.657	.027*
	대학재학 또는 졸업	251	3.35 ^a	0.73		
	대학원 이상	22	3.67 ^b	0.86		
결혼여부	예	80	3.33	0.84	-.209	.834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차이가 나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²²⁾을 적용한 결과 고졸 ($M=3.13$, $SD=0.68$), 대학재학 또는 졸업 ($M=3.35$, $SD=0.73$), 대학원 이상 ($M=3.67$, $SD=0.86$) 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일탈행위 방지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재산 정도,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일탈행위방지수준의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Q1>는<표 6>과 같다. 하위요인1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6>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1에 대한 차이(N=309)

Variable		N	M	SD	t/F	P
성별	남	189	3.50	0.90	-.377	.706
	여	120	3.54	0.86		
연령	20대	211	3.46	0.85	1.082	.357
	30대	31	3.61	0.92		
	40대	38	3.71	0.90		
	50대 이상	29	3.59	1.05		

22) Duncan의 사후분석은 분산분석(ANOVA) 후에 추가적으로 분석했다라고 해서 사후검정(post-hoc test)이라고 하며, 여러 개의 평균을 동시에 비교해서 분석했다라고 해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라고도 한다.

학력	고졸	36	3.25 ^a	0.87	7.356	.00**
	대학재학 또는 졸업	251	3.50 ^a	0.88		
	대학원 이상	22	4.14 ^b	0.71		
결혼여부	예	80	3.59	0.98	.818	.414
	아니요	229	3.49	0.85		
재산 정도	상	10	3.60	0.97	.747	.475
	중	186	3.47	0.91		
	하	113	3.59	0.83		
직업	공무원	91	3.63	0.91	.588	.672
	학생	180	3.48	0.88		
	전문직	3	3.67	1.53		
	기타직업	4	3.25	0.96		
	직업 무	31	3.45	0.77		

** $p < .01$

일탈행위방지수준의 하위요인 1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차이가 나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적용한 결과 학력의 경우 고졸 ($M=3.25$, $SD=0.87$), 대학재학 또는 졸업 ($M=3.50$, $SD=0.88$), 대학원 이상 ($M=4.14$, $SD=0.71$) 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1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재산 정도,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2에 대한 차이<Q5>는 <표 7> 과 같다.

<표 7>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2에 대한 차이($N=309$)

Variable		N	M	SD	t/F	P
성별	남	189	3.22	0.93	-.703	.483
	여	120	3.29	0.88		
연령	20대	211	3.17	0.89	2.389	.069
	30대	31	3.58	0.85		
	40대	38	3.24	0.97		
	50대 이상	29	3.45	0.95		
학력	고졸	36.00	3.06 ^a	0.83	3.378	.035*
	대학재학 또는 졸업	251.00	3.24 ^a	0.92		
	대학원 이상	22.00	3.68 ^b	0.84		
결혼여부	예	80	3.31	0.92	.759	.449
	아니요	229	3.22	0.91		

재산 정도	상	10	3.20	1.14	.876	.417
	중	186	3.19	0.94		
	하	113	3.34	0.84		
직업	공무원	91	3.34	0.88	.864	.486
	학생	180	3.19	0.90		
	전문직	3	3.67	1.53		
	기타직업	4	2.75	0.50		
	직업 무	31	3.29	1.01		

* $p < .05$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2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차이가 나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적용한 결과 학력의 경우 고졸 ($M=3.06$, $SD=0.83$), 대학재학 또는 졸업 ($M=3.24$, $SD=0.92$), 대학원 이상 ($M=3.68$, $SD=0.84$)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일탈행위방지수준의 하위요인 2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재산 정도,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하위요인3에 대한 차이<Q4>는 <표 8>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행위수준의 하위요인3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8〉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3에 대한 차이(N=309)

Variable		N	M	SD	t/F	P
성별	남	189	3.23	0.89	-.848	.397
	여	120	3.33	0.99		
연령	20대	211	3.30	0.88	1.141	.333
	30대	31	3.32	1.01		
	40대	38	3.29	0.90		
	50대 이상	29	2.97	1.18		
학력	고졸	36	3.08	0.81	.978	.377
	대학재학 또는 졸업	251	3.30	0.90		
	대학원 이상	22	3.18	1.40		
결혼여부	예	80	3.09	1.03	-2.032	.043*
	아니요	229	3.33	0.89		
재산 정도	상	10	3.00	1.33	.876	.418
	중	186	3.32	0.95		
	하	113	3.21	0.86		

직업	공무원	91	3.11	0.98	.971	.424
	학생	180	3.33	0.87		
	전문직	3	3.33	1.53		
	기타직업	4	3.50	0.58		
	직업 무	31	3.32	1.11		

* $P < .05$

일탈행위방지수준의 하위요인 3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 ($M=3.09$, $SD=1.03$)집단보다 미혼 ($M=3.33$, $SD=0.89$) 이 일탈행위방지수준의 하위요인 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학력, 재산 정도,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공직동기 교육의 차이<Q3+Q2>에 대해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9> 공직동기 교육의 차이(N=309)

Variable		N	M	SD	t/F	P
성별	남	189	3.18	0.85	-.749	.454
	여	120	3.25	0.86		
연령	20대	211	3.14	0.80	2.259	.082
	30대	31	3.34	0.94		
	40대	38	3.50	0.85		
	50대 이상	29	3.21	1.01		
학력	고졸	36	3.26 ^a	0.78	7.691	.000**
	대학재학 또는 졸업	251	3.14 ^a	0.84		
	대학원 이상	22	3.86 ^b	0.80		
결혼여부	예	80	3.30	0.92	1.118	.265
	아니요	229	3.18	0.82		
재산 정도	상	10	2.95	1.04	.479	.620
	중	186	3.22	0.88		
	하	113	3.22	0.78		
직업	공무원	91	3.32	0.92	2.122	.078
	학생	180	3.10	0.78		
	전문직	3	3.83	1.04		
	기타직업	4	3.50	1.08		
	직업 무	31	3.40	0.90		

** $p < .01$

즉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차이가 나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적용한 결과 학력의 경우 고졸 ($M=3.26$, $SD=0.78$), 대학재학 또는 졸업 ($M=3.14$, $SD=0.84$), 대학원 이상 ($M=3.86$, $SD=0.80$) 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직동기교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재산 정도,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공직동기 교육의 하위요인1에 대한 차이<Q3> 공직동기교육의 하위요인1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아니 하였으므로 관련 표는 생략한다.

그러나 공직동기교육의 하위요인2에 대한 차이<Q2>에 대한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samples t 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10〉 하위요인 2에 대한 차이분석($N=309$)

Variable		N	M	SD	t/F	P
성별	남	189	3.24	0.90	-1.233	.219
	여	120	3.38	0.94		
연령	20대	211	3.22	0.87	2.016	.112
	30대	31	3.32	1.01		
	40대	38	3.58	0.92		
	50대 이상	29	3.45	1.06		
	고졸	36	3.31 ^a	0.79		
학력	대학재학 또는 졸업	251	3.21 ^a	0.91	13.468	.000***
	대학원 이상	22	4.23 ^b	0.61		
결혼여부	예	80	3.40	0.96	1.198	.232
	아니요	229	3.26	0.90		
재산 정도	상	10	3.10	1.37	.445	.641
	중	186	3.33	0.92		
	하	113	3.26	0.86		
직업	공무원	91	3.42	0.98	1.849	.119
	학생	180	3.19	0.87		
	전문직	3	4.00	1.00		
	기타직업	4	3.00	1.41		
	직업 무	31	3.48	0.89		

*** $p < .001$

공직동기교육의 하위요인 2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차이가 나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적용한 결과 학력의 경우 고졸 ($M=3.31$, $SD=0.79$), 대학재학 또는 졸업 ($M=3.21$, $SD=0.91$), 대학원 이상 ($M=4.23$, $SD=0.6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직동기교육의 하위요인2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재산 정도,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1>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N=309$)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재산 정도	직업	공직동기 교육	일탈행위 방지수준
성별	1							
연령	.121*	1						
학력	.222**	.197**	1					
결혼	-.105	-.845**	-.216**	1				
재산 정도	-.037	-.170**	-.187**	.133*	1			
직업	-.092	-.372**	-.183**	.442**	.034	1		
공직동기교육	.043	.097	.110	-.064	.025	.056	1	
일탈행위 방지수준	.045	.040	.150**	.012	.040	-.003	.509**	1

* $p < .05$ ** $p < .01$

첫째로 상관분석결과, 통제변수(control variable)중 학력과 독립변수인 공직동기 교육이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미국의 경우 고학력자가 봉사수준이 높은 것은(Bright 2005, 138-15) 연구자가 발견한 것과 유사하다. 통제변수 중 학력과 공직동기 교육의 경우 일탈행위 방지수준과 ($r=0.150 \sim 0.509$, $p < .01$)의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탈행위 방지수준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학력과 공직동기교육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이 종속변수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12>와 같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이 종속변수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았다. 상관분석결과, 통제변수 중 학력과 공직동기 교육의 하위요인 중 Q2, Q3,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Q4, Q5이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Q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표12〉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이 종속변수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분석(N=309)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재산 정도	직업	Q2	Q3	Q4	Q5	Q1
성별	1										
연령	.121*	1									
학력	.222**	.197**	1								
결혼	-.105	-.845**	-.216**	1							
재산 정도	-.037	-.170**	-.187**	.133*	1						
직업	-.092	-.372**	-.183**	.442**	.034	1					
Q2	.070	.124*	.165**	-.068	-.015	.032	1				
Q3	.008	.050	.035	-.045	.055	.064	.539**	1			
Q4	.048	-.079	.038	.115*	-.024	.059	.349**	.349**	1		
Q5	.040	.095	.136*	-.043	.071	-.016	.470**	.367**	.554**	1	
Q1	.022	.084	.198**	-.047	.052	-.053	.444**	.225**	.426**	.510**	1

* $p < .05$ ** $p < .01$

통제 변수 중 학력과 공직동기 교육의 하위요인 중 Q2, Q3,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중 Q4, Q5의 경우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Q1과 ($r=0.198 \sim 0.510$, $p<.01$)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Q1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학력과 공직동기교육의 하위요인 Q2, Q3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Q4, Q5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공직동기 교육이 일탈행위 방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공직동기 교육이 일탈행위 방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주요변인들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 주요 변인과 종속변수의 상관계수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0.150 \sim 0.509$, $p<.01$),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2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VIF)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²³⁾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13>에 나타나있다.

23) 공선성 통계량(collinearity statistics)은 분산팽창요인 즉 VIF(variance inflation factor)<10 일때, 혹은 공차한계(tolerance)>0.2 일때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표13〉 공직동기 교육이 일탈행위 방지수준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N=309)

	<i>Unstandardized Coefficients</i>		<i>Standardize Coefficients</i>	<i>t</i>	<i>p</i>	<i>Collinearity Statistics</i>	
	<i>B</i>	<i>SE</i>	<i>Beta</i>			<i>Tolerance</i>	<i>VIF</i>
(Constant)	1.670	.178		9.405	.000		
dum_대학재학 또는 졸업	.271	.113	.143	2.392	.017*	.667	1.500
dum_대학원 이상	.269	.174	.093	1.547	.123	.653	1.531
공직동기 교육	.447	.044	.512	10.241	.000***	.952	1.050
R Square				0.273			
Adjusted R Square				0.266			
F				38.223			
p				.000***			

* $p < .05$ *** $p < .001$

주: 학력은 범주형 자료로 dummy변수화 하였으며 기준 범주는 평균이 가장 낮은 항목인 고졸을 기준으로 설정함.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7.3%(Adjusted R Square=0.266)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8.223$, $p<.000$). 다음으로 공직동기 교육이 유의한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p<.000$).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공직동기교육이 1만큼 높아지면 일탈행위 수준이 0.512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학력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력변수의 경우 대학재학 졸업집단($t=2.392$, $p<.05$) 이 고졸집단보다 일탈행위 방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하위요인과 종속변수의 하위요인들이 Q1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 성을 확인하고자 주요변인들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 주요 변인과 종속변수의 상관계수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r=0.198 \sim 0.510$, $p<.01$),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이상이며 분산팽창요인(VIF)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14>에 나타나있다.

〈표 14〉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Q1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N = 309)

	<i>Unstandardized Coefficients</i>		<i>Standardized Coefficients</i>	<i>t</i>	<i>p</i>	<i>Collinearity Statistics</i>	
	<i>B</i>	<i>SE</i>	<i>Beta</i>			<i>Tolerance</i>	<i>VIF</i>
(Constant)	1.220	.220		5.557	.000		
dum_대학재학 또는졸업	.169	.129	.075	1.312	.191	.658	1.520
dum_대학원이상	.476	.200	.139	2.377	.018*	.627	1.595
Q2	.258	.059	.267	4.395	.000***	.579	1.727
Q3	-.091	.049	-.105	-1.871	.062	.674	1.484
Q4	.195	.054	.205	3.573	.000***	.649	1.540
Q5	.285	.058	.294	4.919	.000***	.598	1.672
R Square				0.356			
Adjusted R Square				0.343			
F				27.834			
p				.000***			

* $p < .05$ *** $p < .001$ 주: 학력은 범주형 자료로 dummy ²⁴⁾

마지막으로 다중 회귀 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35.6%(Adjusted R Square=0.343)로 나타났다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7.834$, $p<.000$). 다음으로 Q2, Q4, Q5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Q1에 대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p<.000$).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면 Q5(Beta= 0.294, $p<0.000$) > Q2(Beta= 0.267, $p<0.000$), Q4(Beta= 0.205, $p<0.000$)순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Q1에 미치는 영향력이 Q2, Q4에 비해 Q5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또한 통제변수인 학력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학력 변수의 경우 대학원 이상 집단($t=2.377$, $p<.05$) 이 고졸집단보다 Q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Ⅵ. 분석결과의 시사점: 공직동기를 통한 일탈 행위의 통제

지금까지 PSM과 공직자 일탈행위와의 실증적 분석을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그 실증적인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통하여 공직동기를 통한 공직자의 일탈행위의 통제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PSM 과 일탈행위는 이론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

24) 가변수(dummy variable)란 “측정대상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1' 또는 0을 부여하여 비계량 변수(non-metric variable)를 계량변수”로 변형시킨 것이다.

다. 즉 높은 공직 동기는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탐색적 제안을 논의하여본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PSM강화를 통한 일탈행위의 내적 통제기제(internal control mechanism)를 강조한다. 물론 “색출 및 적발증대”(박홍식 1999:57-73)를 통한 확실성 증대, 불구속 또는 집행유예 등의 축소를 통한 처벌의 확실성 증대, 그리고 사정활동의 객관성과 독립성 강화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본연구의 빈도분석에서는 “공직동기가 높으면 공직자 일탈행위를 막을수 있다”의 문항에 대해 84.5%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조기에 공직동기교육을 하면 일탈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에 대해 79.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러한 빈도분석의 결과를 볼때 공직동기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부패와 일탈행위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직동기(PSM) 이론에 의하여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자기통제(self-control)나 자기도덕성(self-moralizing)의 회복에 의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고무시키는 패러다임(paradigm) 전략은 매우 권장할 만한 일탈 부패통제 전략이다. 김상목(2013: 24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공직봉사호감도”가 국제간의 비교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한국(3.779), 중국(3.992), 덴마크(4.182), 미국(4.157), 영국(4.028), 호주(4.137), 스위스(4.304), 프랑스(4.538) 등 8개국 중에서 공직동기 호감도 조사에서 평균 3.799 으로서 가장 낮은 점수라는데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직동기와 일탈행위의 상관분석결과 통제변수 중 학력과 독립변수인 공직동기 교육이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미국의 경우 고학력자가 봉사수준이 높은 것은(Bright 2005: 138-15) 연구자가 발견한 것과 유사하다. 통제변수 중 학력과 공직동기 교육의 경우 일탈행위 방지수준과 ($r=0.150 \sim 0.509$, $p < .01$)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통제변수 중 학력과 공직동기 교육의 하위요인 중 Q2, Q3,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중 Q4, Q5의 경우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하위요인 Q1과 ($r=0.198 \sim 0.510$, $p < .01$)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직동기가 높으면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접근은 추론통계로서도 입증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한자보다는 미혼자가 더 높은 관계임이 입증되었다.

다중 회귀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35.6%(Adjusted R Square=0.34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7.834$, $p < .000$). 요약하면 높은 공직동기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중요한 효과를 전제로 공직동기부여의 다각적인 인사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높은 공직동기 부여 전략으로서 학교교육에서 공직 동기 특별교육 실시와 공직동기가 높은 자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발견한 공직동기 교육 시기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직동기교육을 하는 것”에 대하여 69.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직동기요인 분석에서 공직동기교육이 일탈행위 방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중고등학교에서 공직동기 교육을 조기

실시하는 경우에 요인적재량은 0.916이고 공무원 희망자에게 조기교육 실시의 요인 적재량은 0.754 로서 높은 요인을 보여 주고 있다. 다중 회기분석에서(표 14)도 (Beta .512; R square 0.273; $p < .000$) 일탈행위 방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직교육을 통하여 보다 헌신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의지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사명감과 봉사의 고취를 위한 학교에서의 조기교육과 아울러 사회교육을 단행할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정한 공직 동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충원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직동기 강화는 한국의 구조적 부패현상인 로비문화(a culture of lobbying)의 통제에도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직동기가 높으면 로비문화는 감소하고 공직동기가 낮으면 로비문화가 더 활발해 진다고 할 수 있다. 로비는 뇌물문화와 직결되는 부패 망(corruption network)이므로 강도 높은 개혁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일탈행위가 불법로비에 의한 유착부패로 인하여 유발되었고 그 원인은 통제되지 아니하는 로비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로비문화는 <표 15>와 같은 “로비공개법²⁵⁾”을 입법화 하여 보다 투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됨이 바람직하다.

〈표15〉 로비 공개법(가칭)의 주요 윤곽내용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의 주요내용
1	로비의 정의(예: 실정법적인 개념정의)
2	로비스트의 정의(예: 로비스트의 신분에 대한 실정법적 정의)
3	로비의 대상 (예: 정부, 기업, 혹은 외국기관)
4	로비활동의 비용과 범위(예: 로비활동 비용 상한선)
5	로비스트의 등록(예: 등록처를 입법부 혹은 행정부)
6	로비스트의 자격(예: 자격증제도)
7	로비스트의 활동(예: 구체적인 활동내용)
8	로비스트의 활동한계(예: 활동범위제한)
9	로비스트의 투명성과 공개(예: 예산공개)
10	로비스트의 권한(예: 권리와 의무)
11	공개와 투명성의 의무(예: 로비스트 고용 기관의 공개)
12	로비공개법과 부패관련법과의 관계(예: 현행 부패관련법과 갈등여부)

자료: 이표는 연구자가 로비공개법을 입법시 포함될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인사 정책방안으로서 공직동기 부여 훈련원 (가칭)또는 공직동기 부여 프로그램(가칭)을 설치하여 장차 공직자를 원하는 인력자원들에게 공직동기를 고취시키거나

25) 미국의 경우 1995년에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PUBLIC LAW 104-65 DEC. 19, 1995)을 입법화하여 로비활동을 허용하되 일정한 통제를 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입법화 되지 아니 하였다.

교육을 함으로서 일탈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을 통하여 무엇보다 공직동기를 부여하고 양양시키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일탈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경·관 그리고 권력과의 구조적인 유착에서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고, 특히 일탈방지 시스템(system)이 부족하거나 기존 일탈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제도상의 문제점의 요체는 일탈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통제메커니즘(control mechanism)의 결핍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적인 공직자 일탈행위 통제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성과 국제간의 신임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부패망(social corruption network)²⁶⁾을 치유하는 길은 공직동기가 확실한 후보자를 공직자로 채용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이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VI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인 부패행위의 실체를 이론적인 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개혁방향을 논의하여 보았다. 요컨대 공직자들의 일탈은 우리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서 치유가 용이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빠른 시기 안에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국가사회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탈행위를 단순히 처벌하는 측면에서 억제론을 논의하였으나 이 논문은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새로운 억제방향을 제시한 탐색적인 연구(exploratory study)이다. 이론적인 것과 실증적인 발견을 통합하여 높은 공직자의 봉사 동기가 일탈행위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많은 공무원과 공무원 준비생들이 공직자의 봉사 동기를 학교 교육기관을 통하여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일탈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일탈 부패행위 방지 전략이 요청된다고 본다. 예컨대 규범과 제도적으로 통합부패방지법²⁷⁾의 제정과 함께 로비공개법을 입법화하고 공직동기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인사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부패의 일탈행위로 인한 부패 망(corruption network)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26) 여기에서 부패 망(corruption network)이란 부패의 연결고리를 지칭한다. 즉 구조적인 부패문화(a culture of corruption)라고도 할 수 있다.

27) 현재 산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다양한 부패관련법(예: 국민권익보호 관련법, 김영란 법 등)과 함께 로비 공개법도 독립된 통합부패방지법에 포함시켜 입법화하는 경우를 예상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상목(2013), 한국인의 공공봉사 동기, 서울: 집문당.
- 김선웅(2006), 개념중심의 사회학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영종(2001), 부패 학 (개정증보4판), 서울: 숭실대 출판사.
- _____(2006), “부패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부패학회보, 11(1), 1-21.
- _____(2008), 신 사회학 개론(전정판), 서울: 형설출판사.
- 김준호 외 6인(2015), 일탈과 범죄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 남궁근(2011),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동아 일보, 2014.7.27일자.
- 박홍식(1999), “적발율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3: 57-73.
- 손배원(2007), “우리나라 로비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2-3: 45-70.
- 이병철(2013), Bible Rex (9.0) 서울: Peniel Bible Research Institute.
- 이정주, 윤은기(2013),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과악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4): 353-378.
- 조선일보, 2014. 년10월 7일.
- 최영인, 엄건령(2005), 문화적 일탈이론과 범죄학습이론, 서울: 백산출판사.
- 최태성, 김성호(2004),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Ackerman, Susan Rose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bbie, Earl R. (1979),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Inc..
- Brewer, G. A., Selden, S.C. and Facer II, R. L. (2000), “Individual conception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AR* 60(3): 254- 264.
- Brewer, G. A. and Selden, S. C. (1998), “Whistle blowers in the federal civil service: New evidence of the public service ethic”, *JPART*, 8(3): 413-440.
- Bright, Leonard (2005). “Public Employees with High Level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Who Are They, Where are They and What do They want?”,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5(2): 138-155.
- Burrell, Gibson and Morgan, Gareth (1979), *Sociological Paradig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Elements of the Sociology of Corporate Life*, London: Heineman.
- Carino, Lediaina V. (1986), *Bureaucratic Corruption in Asia*, Quezon City. Manila: JMC Press Inc.
- Clinard, Marshall Barron (1974), *Sociology of Deviant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Collier, M.W. (2002), “Explaining Corruption: an institutional choice approach”, *Crime, Law and Social Change*, 38(1): 1-32.
- Coursey, David. H and Pandey, Sanjay K.(2007), “Public Service Motivation Measurement Testing an Abridged Version of Perry’s Proposed Scale” *Administration and Society*,

- 39(5): 547-568.
- Crewson, Philip E. (1997), "Public-Service Motivation: Building Empirical Evidence of Incidence and Effect", *JPART*, 7(4): 499-518.
- Dur, Robert and Zoutenbier, Robin, (March/April 2014), "Working for a Good Cause", in *PAR*, 74-2: 144-155.
- Durkheim, Emile (1897). *Le Suicide* Paris: Libraire Felix Alcan
- Ford, Robert C. and Richardson, Woodrow D. (1994), "Ethical Decision Making: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i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 205-221.
- Frederickson, H. George (1993),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NY:M.E. Sharpe, Inc.,
- Graaf, Gjaltand Huberts, L.W.J.C. (2008), "Portraying the Nature of Corruption Using an Explorative Case Study Design", *PAR*, 68-4: 640-653.
- Hall, Steve and Winlow, Simon (ed.) (2012), *New Directions in Criminological Theory*, New York: Routledge.
- Heidenheimer, Arnold (1978),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Huntington, Samuel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Keith, Timothy Z.(2006), *Multiple Regression and Beyond* New York: Pearson
- Im, Tobin and Lee, Hyunkuk (2012), "Can public service motivation reduce corruption? Evidence from Korean Public Servants"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Network Conference*, Hawaii:1-18.
- Kim, Eunsil (2005), "Aggressive Lobbying or Legalized Form of Political Corruption: How money is shaping the direction of US Copyright Law" in *KCSR*, 10-4: 21-33.
- Kim, Young Jong (2003), *N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Studies*, Seoul: Hyung Seoul Publishing
- ____et al.(Oct. 9-10, 2014), "Explor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Corruption Theorie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PSM Workshop in Zeppelin University*, Friedrichshafen, Germany: 1-23.
- Hoselitz, Bert (1967), "Levels of Economic Performance and Bureaucratic Structures," in *Bureau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ed.)*, by Joseph LaPalombar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0.
-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7-11, September 1997), *The Lima Declaration*, Lima, Peru:1-5.
- Klitgaard, Robert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mbsdorff, J.G. (2007), *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and Reform: Theory and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kert, Rensis (1932).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140: 1 - 55

- Maesschalck, Jeroen et al. (2008),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Ethical Conduct", in *Motivation in Public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57-176.
- Manly, Bryan F.J.(1986),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New York: Chapman & Hall.
- Maslow, Abraham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Nye, J.S (1979).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 Benefit Analysis" in *Bureaucratic Corruption in Sub-Saharan Africa, edited by Monday V. Expo*, Washing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411-433.
- Perry, J. L. and Hondeghem, A. (2008), *Motivation in Public Management, The Call of Public Serv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rry, J. L., Hondeghem, A. and Wise, L. R. (2010), "Revisiting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Twenty years of research and an agenda for the future", *PAR*, 70(5): 681-690.
- Perry, J. L. and Wise, L.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AR*, 50(3): 367-373.
- Perry, James L., and Lois Recascino Wise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AR*, 50: 367-373.
- Perry James L. (1996),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Assessmen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JPRT*, 6(1): 5-22.
- Prins, Herschel (1982), *Criminal Behavior: An Introduction to Criminology and the Penal System*,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Pinto, Jonathan et al. (2008), "Corrupt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of corrupt individuals? Two types of organization level corruption" i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3-3: 685-709.
- Quah, Jon S.T. (2003), *Curbing Corruption in Asia*, Singapore: Eastern Universities Press
- Rainey, H. G. (2009),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Public Organizations*, San Francisco, CA: John Wiley & Sons, Inc.
- Riggs, Fred W. (1970), "The 'Sala Model' and Comparative Administration" in *Political Corruption (ed.)*, A. Heidenheimer,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212-219.
- Sagan, Carl (1963), "Unidentified Flying Objects", *The Encyclopedia Americana, The International Edition*, XXVII: 368.
- Selltiz, C. et al.(1976) *Research Methods in Social Relations* New York: Rinehart & Winston
- Siegel, Larry J.(2012),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Toronto: Cengage Learning.
- Traub Stuart H. and Little (1975), *Theories of Deviance*, Itasca: F. G. Peacock Publishers, Inc.
- Vandenabeele, W. (2007), "Toward a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MR*, 9(4): 545-556.
- Warwick, Donald P. and Lininger, Charles A. (1975), *The Sample Surve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Werner, Simcha B. (1983), "New Direction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in *PAR*, 43 (2): 146-154.

투고일자 : 2016. 03. 12

수정일자 : 2016. 03. 29

게재일자 : 2016. 03. 30

부록

<부표1> 공직자 동기이론(PSM)과 공직자 일탈행위 억제에 대한 설문지

배경 1. 성별(남. 여) 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학력(고졸, 대학재학 또는 졸업, 대학원 이상) 4. 결혼(예. 아니요) 5. 재산 정도(상. 중. 하) 6. 직업(공무원, 학생, 회사원, 전문직, 기타직업, 직업 무)

1. 공직 동기가 높으면 공직자 일탈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전혀 막을 수 없다. 2). 약간 막을 수 있다. 3). 보통이다
4). 막을 수 있다. 5). 매우 잘 막을 수 없다.
2. 장래 공무원 희망자들에게 학교에서 조기에 공직동기교육을 실시하면 일탈행위 부패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3. 공직자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공직동기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부정적이다. 2) 부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긍정적이다. 5) 매우 긍정적이다.
4. “공직자 일탈행위”의 원인에는 공직자동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전혀 관계가 없다. 2) 약간 관계가 있다. 3) 보통이다
4) 높은 관계가 있다. 5) 매우 높은 관계가 있다.
5. 부패의 억제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높은 공직동기부여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전혀 효과가 없다. 2) 약간 효과가 있다. 3) 보통이다.
4) 효과가 있다. 5) 매우 효과가 있다.

<국문초록>

공직동기이론(PSM)을 통한 공직자의 일탈행위 억제:

투명사회를 위한 탐색적 연구

김 영 중

이 연구의 목적은 공직자들의 동기이론(PSM: Public Motivation Theory)에 근거하여 공직 동기가 공직자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여 투명사회를 지향하려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연구가 강제성과 규범적인 접근에 의한 일탈행위억제 전략을 강조하는데 반해 공직동기 고양을 통한 일탈행위 억제에 인한 투명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직 동기교육과 인사충원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공직동기의 효과를 극대화 함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함의를 가진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먼저 공직동기의 개념적 논의를 하고 그리고 동기와 일탈행위 관련 실증적 데이터를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추론통계(inference statistics)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대상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 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들과 그리고 서울시 노량진에 소재한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 생, 숭실대 행정학부 공무원 준비 대학생 등에서 판단표본추출(judgment sampling)된 총 309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SPSS Win 22 프로그램에 의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공직동기가 일탈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에서 공직동기가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서는 83.5% 이상이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학교에서 조기에 공직동기교육을 하는데”는 79.2%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둘째, 일탈행위 방지수준의 요인분석에서 “공직동기가 높으면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814)”과 “중고등학교에서 공직동기 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이 유익(.91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행위 방지 수준은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다르고 결혼 여부에 따라 상이하였다. 셋째, 종속 변수인 “공직동기가 높으면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유의한 관계($p < 0.01$)로 나타났다. 넷째, 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7.3%로서($R^2 = 0.273$) 유의하였다($F = 38.223, p < 0.000$). 마지막으로 공직동기 요인이 일탈행위에 미치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 인식이 유의하며($t = 2.392, p < 0.05$)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t=-2.032$, $p<.043$).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공직동기가 높은 자를 인사충원 제도에서 고려하고, 공직자 동기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투명사회지향에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연구이다.

주제어: 공직동기, 일탈행위, 투명사회, 부패억제, 공직동기교육, 반부패전략